

예술가와 오월어머니·시민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9일 5·18민주광장 오월어머니 이야기 '주먹밥 나눔' 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등

지난 87년 6월 9일은 민주화를 외치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날이다. 이후 휴유증으로 그해 7월 5일 사망에 이른다. 이한열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오월 정신과 6월 항쟁의 민주정신 등을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의미가 담긴 5·18민주광장에서 인문예술축제가 9일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김덕진, 이하 재단)이 9일 오후 5시30분이 개최하는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총감독 주홍)가 그것.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오월어머니들의 서사를 담아 만든 '주먹밥 나눔 춤'과 광주 정신을 조망하는 토크쇼 등이 마련돼 대동 한마당,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주홍 총감독은 "시민 축제는 참여하는 모든 이가 주인공이다. 광장은 문이 없고 문턱이 없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억울한 이들이 연대하고 발언한다"며 "이번 축제는 민주광장의 정신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철학, 역사, 그림, 노래, 춤 등 예술로 발현되고 함께하는 연대와 놀이로 승화된다"

고 전했다. 먼저 행사 막은 전통문화연구회 열쑤, 짬이,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타악과 농악이 어우러진 '민주 한마당'이 펼쳐진다. 깃발이 창공을 가르고 전통타악이 땅을 흔들며 무등산 호랑이 춤이 신명의 흥으로 광장을 넘어마당으로 만든다.

이후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광주정신 토크쇼가 이어진다. 자유시민대학 이사장인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순신의 바다'의 저자이자 역사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이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를 주제로 집단지성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대동의 춤'. 나은영 안무가와 오월어머니들이 선보이는 '주먹밥 나눔' 춤은 평화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월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긴 춤으로 시민들과 대동의 춤을 함께 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주먹밥 나눔 춤'은 안무가 나은영이 오월어머니들과 오월어머니집에서 함께 만들었다.



9일 5·18민주광장에서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행사 장면(왼쪽), '주먹밥 나눔 춤'을 연습하는 오월어머니들. <주홍 작가 제공>



춤은 '함께라서 좋았다'라는 오월가요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대동의 한마당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열쑤 춤동작은 단순해보이지만 어머니들의 슬픔과 고통, 연대의 서사가 춤에 담겨 있어 그 뜻이 더욱 깊다.

춤을 추는 동안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가 5·18민주광장을 풍성하게 채운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오월정신 릴레이드로잉'도 펼쳐진다. 한희원, 홍성담 등 50여 명 전문작가와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작가 50여 명 등 모두 100여 명이 '다시 그리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재단 김덕진 이사장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권과 자유, 평화가 파괴되

고 있으며 무자비한 살육과 침탈로 인해 지구촌은 약육강식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광주정신 역시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시키고 지켜나가 지 않으면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일들로 과거와 같은 아픔이 또 일어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행사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와 그림 그리고 뜻이 한데 어우러져

초연당 민은숙 '시의화전'... 19일까지 진도 여귀산미술관

"문인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생동하는 선입니다. 대상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파악해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재적인 특징을 공감하며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대상에 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초연당 민은숙 작가가 오는 19일까지 진도 여귀산미술관에서 전시를 연다.

지난달 20일에 개막해 진행 중인 이번 '시의화전' (詩意畫展)은 시와 그림 그리고 뜻이 한데 어우러지는 전시다. '시조시화'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민 작가는 창현 박종호로부터 문인화를 사사받았다. 대한민국서예대전 문인화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인사동 한국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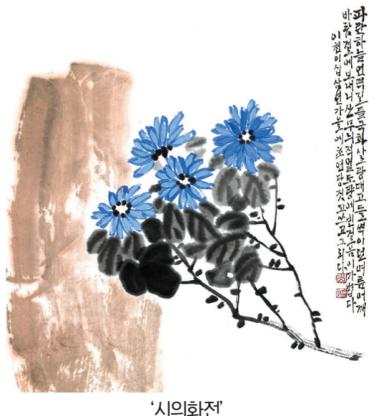
이번 전시 주제 '시의화전' (詩意畫展)이 말해주듯 작가는 시에 담긴 뜻과 이를 그림으로 연계해 자

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풀어낸다.

민 작가는 문인화에 대해 "종이와 붓, 먹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이 잘 어울려 하나가 되었을 때 울림이 있는 작품을 선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수많은 훈련과 감응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묵련을 기다리며'에는 민 작가가 쓴 글과 붓의 이미지가 서정적으로 형상화돼 있다. 묵련 꽃 그늘 아래 피어오르는 묵련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길에도 기다림의 심상이 드리워져 있다. 비단 묵련을 기다리는 것은 고양이가 아닌 것이다. 작품을 바라보는 이마다 저마다 다른 감성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문인화가 지닌 매력이다.

한편 민 작가는 경희대 교육대학원 서예문인화 교육자 과정을 마쳤다. 한국문인화협회 창립전, 한국서예협회 문인화 초대전, 한국서예협회 초대작



'시의화전'

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한국구사서예대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화집 '고양이는 매화를 꿈꾸고 나는 고양이를 꿈꾼다', 시조집 '소나무 아리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위기와 도깨비' 국제학술포럼

곡성도깨비마을·키우리문화예술회 공동... 오늘까지

지난 2005년 설립된 곡성도깨비마을은 우리나라 도깨비를 모티브로 문화예술, 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문화학교를 비롯해 생생문화재, 숲체험공원,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같은 활동은 생태계 파괴, 환경 재앙 등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깊은 뜻도 담겨 있다.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 위기는 곧 상상력의 고갈, 도깨비의 소멸로 이어진다.

곡성도깨비마을(총장 김성범·동화작가)에서 국제학술포럼이 7일까지 열린다.

6일~7일 코레일 인재개발원(곡성 도깨비마을 건너편)에서 열리는 '2024도깨비학회 국제학술포럼'은 한국도깨비학회(회장 이운선)와 곡성도깨비마을, 키우리문화예술회가 공동 주최한다.

'기후위기와 도깨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기후 위기를 모티브로 폭넓은 논의의 장을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

사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발표 외에도 문화콘텐츠와의 연관성, 판소리 공연, 답사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범 총장은 "도깨비의 서식처인 숲과 늪과 강과 갯벌 등이 바로 기후위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며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도깨비를 화두로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완화해가는 길을 모색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6일은 첫날은 모두 3부에 걸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후위기 시대 도깨비의 계보와 환경', '기후위기 시대 도깨비와 정령', '도깨비와 문화콘텐츠로 나눠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다. 7일에는 곡성도깨비마을을 답사, 요술댄스 답사 등이 진행된다.

김성범 총장은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학위나 학식, 혹은 전문지식 등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도깨비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등이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품 낭독·음악 콘서트 '문학 성큼성큼'

청소년문화연대 키크, 12일 광주금호중앙여고

'청소년문화연대 키크' (대표 정진화)은 2015년부터 전국 230곳 학교에서 '찾아가는 문학콘서트-문학 성큼성큼'을 진행해 온 청소년 문화단체다. 이들은 팟캐스트 '잡들논다'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문화웹진 '키크'를 발행하는 등 전국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연대 키크가 오는 12일(오후 2시 40분) 광주금호중앙여고 강당에서 '문학 성큼성큼'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송유준, 서지우, 김민선 배우가 출연해 문학작품 낭독, 피아니스트 와이준 등의 음악연주로 채워진다. 이 밖에 도작가 초청 특강, 60초 백일장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

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손현주 작가를 초대해 장편 '가짜 모범생'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제1회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과 2010년 평사리문학대상 등을 수상한 손현주는 '불량가족 레시피', '소년 황금버스를 타다', '뽕뽕머리 앤' 등 청소년 소설을 출간했다.

행사를 기획한 양연식 연출가는 "학생들이 직접 꾸러나가는 행사"라는 취지에 걸맞게 청소년 중 희망자를 선발해 사회자, 목소리 출연자, 이야기 손님 역할 등을 맡긴다"며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낭독 공연", '작가vs독자 프로그램', '독자 참여코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고 했다. 지도교사와 협의해 사전독자감상단을 선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체 행사 대본을 구성하는 점도 이목을 끈다. 학교마다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학생 진화적 공연'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진숙 홍보담당은 "지루하게만 보이던 문학작품을 새롭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며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이 문학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양육자 대상 성평등한 성교육'

'아이가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가정에서 편견 없는 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양육자 대상 성평등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육자들이 자녀 생애주기, 성평등 관점에 따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교육의 중요성', '성 인지 감수성', '가정에서의 사례', '성 행동 이해와 문제 대처' 등이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포괄적성교육)를 기반으로 꾸려졌다.

교육은 재단의 성평등 전문 강사진들이 출강해 총 2회차(2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평등 강사

진은 기본과정, 위촉평가 과정 등 4단계에 따르는 집합교육과정과 필기시험 등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년 단위로 자격을 부여한 위촉한 전문 인력이다.

강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10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평등 광주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했다.

재단 홈페이지와 앱자주 QR코드 등을 통해 신청 가능(10명 이상). /최류빈 기자 rubi@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정 광주시 서구 서양2길3(서양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